

차단신

보이차·자사호 전문 무크지
<지유> 창간



도서출판 바나나(대표 이세영)가 보이차·자사호 전문 무크지 <지유(地乳)>를 창간했다. '지유'는 '차(茶)란 대지가 우리에게 주는 젖과 같다'는 뜻이라는 것이 출판사측의 설명이다.

이세영 대표는 "앞으로 <지유>를 통해 보이차의 종류와 효능, 자사호의 실용성과 예술성 그리고 자사호 공예 소식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라며 "그러나 단순히 차나 차호에 대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응축된 우리 삶의 뿌리를 찾아보자는 뜻에서 '시원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문화'라는 부제를 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장간호에서는 중국공예미술대사 서한당 씨의 자술 회고록 '나의 자사공예 60년'이 눈길을 끈다. 서씨는 글에서 자신의 가계 내력과 자사호를 만들면서 느꼈던 감성, 자사공예인들에게 주는 조언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한국학연구소 박민 소장의 '차문화의 바탕에 대해', 대전 용운학원원 박병춘 원장의 '보이차 체험기' 등도 실려 있다. (02)3210-2634

도예가 박종일씨 찾그릇展



지난해 '기차여행(器茶旅行)'이란 주제로 고베포기형 다선과 무유다관 등의 찾그릇을 선보인 도예가 박종일(서동우 대표)씨가 여섯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대구 다소원 갤러리에서 6월 2일(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장작가마에서 구워낸 백자와 분청 달항아리, 찾그릇 등의 신작이 선보인다.

사천시, 조선 사발 도요지 복원

경남 사천시가 조선 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천시는 조선 사발 도요지가 분포해 있는 사남면과 곤명면 일대를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88억여 원을 들여 복원키로 하고, ㈜유신코퍼레이션에 기본 계획과 타당성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복원 지역과 면적·주요시설 등의 세부 계획은 오는 12월쯤 발표된다. 시는 조선 도요지를 복원하고 전통 도예문화와 역사·문화 체험관을 조성해 문화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성공 힘받아 대중화에 박차

'차문화 체험관' 건립하고 역사·우수성 알리기 주력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올해로 열 돌을 맞았다. 보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산지로 꼽히는 하동의 차 축제에 이제 겨우 열 번째라는 사실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밭'이나 '녹차 음료수'라고 하면 보성의 잘 다듬어진 다원을 먼저 떠올리는 소비자들에게 '하동차'는 아직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산'이다.

바로 여기에 하동군의 딜레마가 있다. 제다(製茶)나 음대(飲茶) 역사에 긴 만큼 차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

관광적 구성력이 다소 떨어진다'(2004년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는 평가에 따라 올해는 '야생차 체험 민박' '다도 웰빙 체험' '녹차 마사지 체험' '관광객 텀플스테이' 등 체험행사를 강화했다.

특히 10주년 기념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하동 야생차의 비밀'이란 주제관과 하동 야생차의 전설과 유래 등을 소개한 마당극은 하동이 차 시메이지야 야생차 주산지라는 점을 알리며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여는 축제 행사장 같으면 텀플이 있었을 중앙 무대 객석도 행사 기간 내내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

다도 웰빙·시음회 등 참여 프로그램 강화 쌍계사와 연계한 텀플스테이 큰 호응 '녹차 클러스트' 선정 생산성 향상 기대

해 한 걸음 늦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10회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소비자를 끌어들인 걸음 더 다가서려는 하동군의 노력이 돋보이는 행사였다.

최근 '차문화 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차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 하동군과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올해를 '전국 차인 하동 방문의 해'로 삼고 야생차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우선 앞서서 관광객을 기다리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무료 체험행사 참가자를 모집하는 한편, 5월 8일 서울 인사동에서 하동 녹차 시음회와 '제10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홍보를 진행했다.

다음으로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마련에 역점을 뒀다. 사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후발 주자지만 최근 4년간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그 구성이나 행사 내용면에서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산업형 축제의 전형을 지나치게 의심함으로써 문화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차사발도요지에서 열린 '찾사발 축제'와 쌍계사 산사음악회 등과 연계한 것도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기획이라는 평을 받았다.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는 "차 시메이지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하동 야생차의 국제적 명품화를 위해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외국인들에게도 색다른 체험의 장이 되고 있다. 사진은 차떡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외국인 참가자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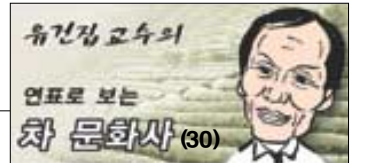
하동군은 올해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해 하동차 알리기에 앞장서고 참가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하동 야생차 축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하동군은 최근 농림부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해 실시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트(산업집적지역)사업'에 '녹차 클러스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하동 녹차의 우수성 연구와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녹차 클러스트'는 하동군을 중심으로 농협과 경남도·한국산업경제연구소·경상대·바이오21·하동차발전협의회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들 단체는 친환경다원 조성, 야생다원 정비, 생산성향상대책 추진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조선시대 ⑤



연표로 보는 차 문화사 (30)

고려의 차 행사가 주로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조선은 서서히 왕실의 종묘나 봉선다례를 위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유학자들이 차를 많이 즐겼고, 그 중에서도 점필재의 문하들이 깊은 차의 정신 세계를 추구하게 된다.

일본은 선진문화에 대한 욕구로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이나 대장경을 얻기 위해 꾸준히 사자가 왔다. 그리고 상시(商市)도 허용되어 왕래가 잦았다.

한편 사찰은 그 수를 줄이고 새로운 장건을 막았으며, 풍속의 순화를 위해 예(禮)의 규범을 정비했다. 국토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팔도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 등을 편찬했

③ 3월에 대왕대비와 인수대비 그리고 왕대비가 광릉에 제사하고 봉선전에 다례를 올렸다.

④ 선초부터 정비한 오례(五禮)에 관한 것을 신숙주 등이 완성한 책으로 점필재의 내용이 들어 있다.

⑤ 대마도주가 우리 사신을 처음 다례로 맞았다.

⑥ 김안국(1478~1543): 호는 모재. 김종직의 문하인 김경필에게 사사했다. 찬성을 지낸 차인으로 그의 글에 '홍다(紅茶)'가 나온다.

⑦ 8월 인정전에서 중국 사신에게 저포, 호포 등과 작설(雀舌) 두 말을 주었다.

⑧ 문징명(1470~1559): 명대의 문인 서화기인 차인으로 <용다고(龍

다례, 사찰 중심서 왕실 위주로 변화 국토 현황 파악에도 차정보 실어

니, 그 기록들 속에 차에 관한 것들이 실렸다. 은제(銀製) 다관에 관한 것도 보인다.

중국은 문사 차인들이 나와 차에 관한 기록들을 저술하여 <다보(茶譜)> <운림유사(雲林遺事)> <품다요록보(品茶要錄補)> 등 전대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보충된다. 일본은 계속 사찰 중심의 차가 이어졌다.

① 이목(1471~1498): 호는 한재. 김종직의 문하로 사부(詞賦)에 뛰어났다. 중국을 다녀오고 스승의 영향을 받아 차를 좋아해서 명문인(다부(茶賦))과 다시를 남겼다. 다선(茶仙)으로 추앙 받는다.

② 김종직이 다원을 만들어 백성들의 공다세(貢茶稅)를 납부해 주었다.

茶錄考)를 썼다. 직접 차를 끓이고 풍품하고 그윽한 아취에 젖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림으로는 '품다도'와 '해산도(海山)'가 유명하다.

⑨ <가례의절>에는 당시의 산차를 우려마신다고 했다.

⑩ 정백이: 명대 사람으로 <품다요록보>를 남겼다.

⑪ 서정경(1479~1511): 명대 문인으로 차를 좋아해서 여러 편의 다시를 썼다.

⑫ 주유빈: 명나라 현종의 여섯째 아들 익왕(益王)이다. 그는 차를 좋아해 <다보> 12권을 편찬했다.

⑬ 고원경(1487~1565): 명대 차인으로 <다보> <운림유사> 등의 저서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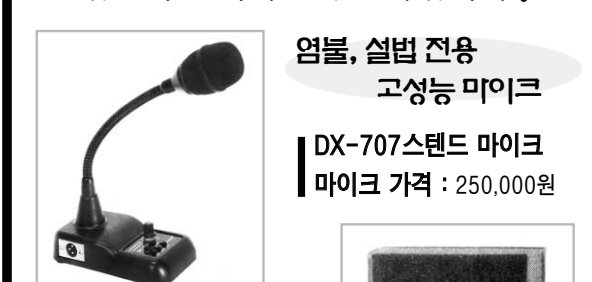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한국	중국	일본
1471 이목(李穡)의 출생 ①	1470 문징명(文徵明)의 출생 ②	④ 강호성(江戶城)에 온 상품 중 관동(關東)의 차가 있었다
점필재 함안에서 다례 ②	1472 산서, 섬서, 허남 등지에서 다음 해 조세 선납	
1472 일본 사신에게 후차를 내리다	1473 봉선전 다례 ③	
1473 봉선전 다례 ③	1474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 ⑤	⑥ 춘전주광(村田珠光)이 대사에서 정법안장(正法眼藏)과 묵보(墨寶)를 받다
1474 <국조요례> 완성 ④	1474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 ⑤	
봉선전이나 왕실제에 술 대신 차를 쓰게 함	⑦ 정백이(程伯二)의 활동 ⑧	
1476 대마도주 김자정을 대례로 맞다 ⑤	1479 서정경(徐禎卿)의 출생 ⑨	
사신행다례를 10여회 행함	⑩ 신숙주 수미왕사 차선물	
김안국(金安國)의 출생 ⑥	1481 <동국여지승람> ⑦	
일본에 '밀판다시'를 주다	1485 상인들 왜인(倭人)과 상사 허가	
⑧ 신숙주 수미왕사 차선물	1488 사처스러움을 다례로 간소화하려는 상소(유자광)	
1481 <동국여지승람> ⑦		
1485 상인들 왜인(倭人)과 상사 허가		
1488 사처스러움을 다례로 간소화하려는 상소(유자광)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율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시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0212677-5442
소연구원 : 0321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승복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면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면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면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바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활동 면물염색)

■시원한 차이나 낭방, 모지, 걸방, 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전시장 : 053-256-0108
공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불기 2549년 부처님 오신날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관음사 대구분원

주지 元明

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중구 심덕동 2가 26
TEL 053)421-3700
FAX 053)427-1889